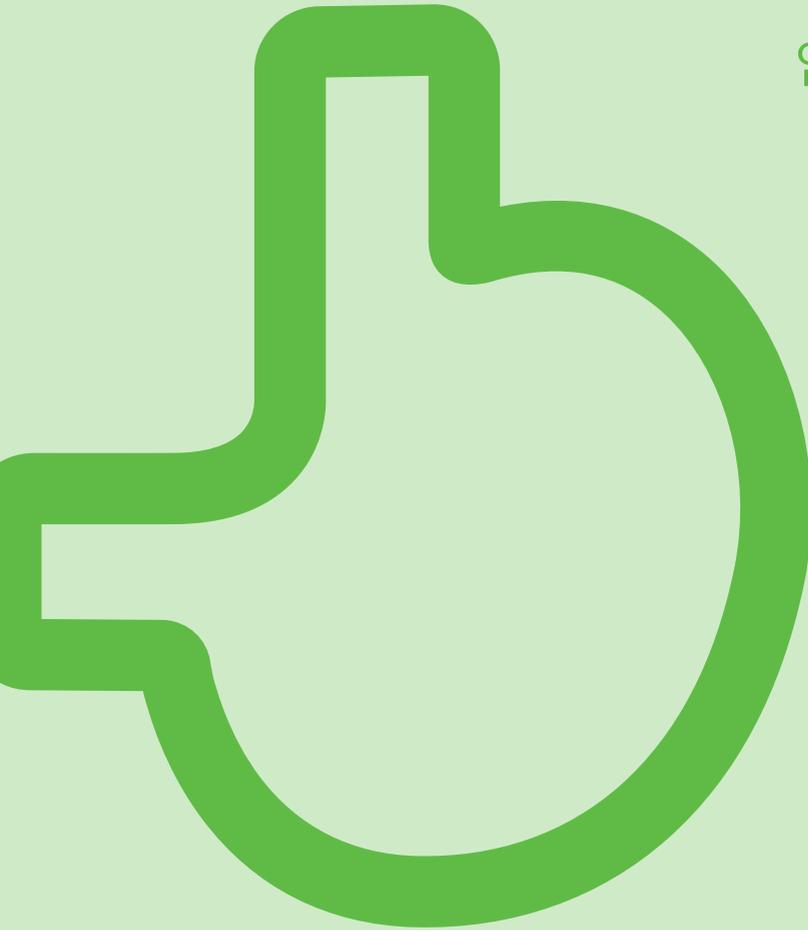


위암

암에 대한 바른 이해



국민 암예방 수칙



담배 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 하기



음식 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잔의 소량 **음주** 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걸거나 **운동** 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 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 을 빠짐없이 받기

위암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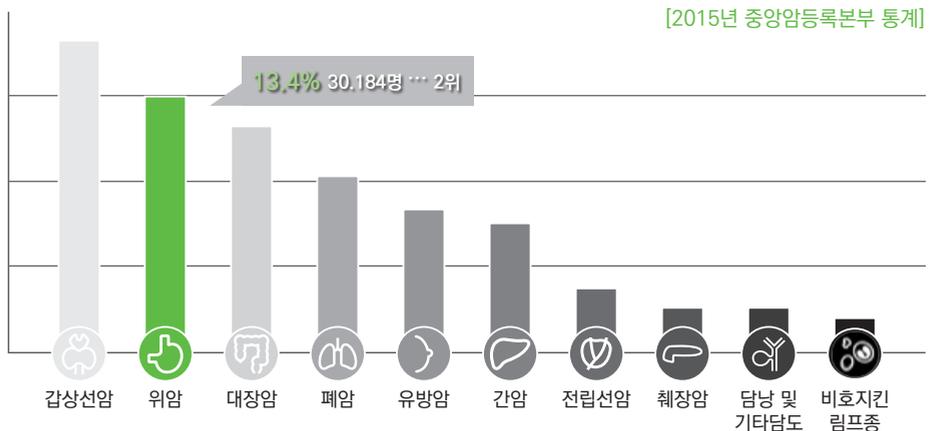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는 암(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이 위에 생기면 위암이라고 합니다.

위는 섭취한 음식을 임시 저장하면서 장으로 천천히 전달하는 저장고 기능과 위액을 분비하여 음식을 잘게 부수고 분해하여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기 쉽도록 만드는 소화기능을 합니다.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은 위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모양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선암 외에도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위의 신경 및 근육 조직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육종(비상피성 조직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 그리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암은 2015년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2위를 차지합니다.



위암의 위험요인은?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질환 요인

- 만성 위축성 위염
- 악성 빈혈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생활 요인

- 탄 음식,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
- 흡연을 하는 사람

기타요인

- 과거에 위의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 위암의 가족력
(유전 요인보다는 가족의 식생활이 비슷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알려진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식생활 개선하기

-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
- 짠 음식, 탄 고기나 생선 먹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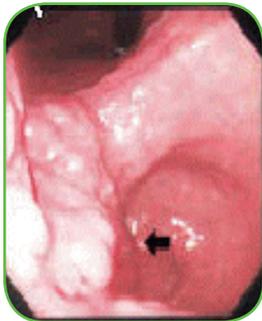
- 생활 습관 관리하기

- 금연하기

- 정기적인 검진 받기

- 위내시경검사 정기적으로 받기

(만성위축성 위염 등 위암 관련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검진 주기를 정하세요)



[위내시경 검사]

위암의 검진권고안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으므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의 검진권고안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의 성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암의 선행 병변으로 간주되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는 사람은 권고안대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암의 검진 권고안

| | |
|-------|------------------|
| 검진 대상 | 40세 이상(남녀 공통) |
| 검진 주기 | 2년마다(증상이 없는 경우) |
| 검진 방법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위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위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나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중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
- 2년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위 50 %에 해당하더라도 본인부담금 10 %를 지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현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해당연도 내에 검진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 드린 검진 안내문에 안내된 기관을 방문하세요.
-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is.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예약 후 방문하세요.
-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위암의 증상은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위암만의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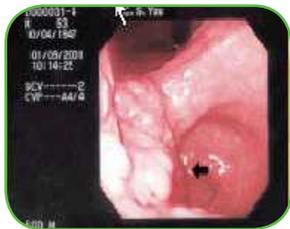
- 소화불량
- 속 쓰림
- 오심(메스꺼움), 구토
- 체중 감소
- 복통
-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
- 피가 섞인 구토물(토혈), 흑색변
- 어지러움, 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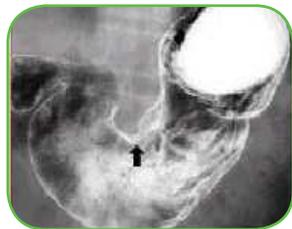
위암의 진단 및 치료

위암의 진단

- 일반적으로 위내시경검사, 상부위장관촬영술,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위암을 진단하며, 위내시경검사 시 조직검사를 하여 암세포를 발견하면 확진이 됩니다. 또한 암이 주변 장기를 침범했는지, 림프절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는 전산화단층촬영(CT)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



[상부위장관촬영술]



[CT촬영]

위암의 치료

- 위암으로 진단되면 병기(병의 진행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현재까지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위암 수술의 목표는 암의 완전한 절제와 절제 후 식생활과 영양 섭취에 가능한 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근방법에 따라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로봇수술로 나누고, 수술 범위에 따라 아전절제, 전절제, 근위부 아전절제, 병합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보존 여부 등에 따라 유문부(위 아래쪽의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부분) 보존수술, 고전적인 수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기 위암 중에서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며 크기가 2cm 이내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암은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로 치료하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도 있습니다.

위암이 궁금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는데 치료를 하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헬리코박터 균은 우리나라 사람의 50~60% 정도가 감염되어 있을 만큼 매우 흔합니다.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 발생을 높이지만,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뚜렷한 예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림프종(MALT 림프종) 환자의 일부에게 권고하며, 건강한 일반인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제균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위내시경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다음 검진은 얼마 만에 받아야 하나요?

암검진을 위해서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한 번씩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 조영촬영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립니다. 위암일까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 증상은 위암 뿐만 아니라 위염이나 위궤양일 때도 있을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있다고 모두 위암은 아닙니다. 증상이 며칠 내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또한 2년 이내에 위암검진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위암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위암) 안내



연령
만 40세 이상 남녀



대상
증상이 없는 경우



주기
2년마다



검진방법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중 선택





제 작 :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문의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